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

鄭 駟 謨*

<目 次>

緒 論	Ⅳ. 西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名稱
Ⅰ. 東洋에 있어서의 記錄類의 通稱	Ⅴ. 19世紀 末期 東洋에 있어서의 圖書館名稱의 變遷
Ⅱ. 西洋에 있어서의 記錄類의 通稱	結 論
Ⅲ. 東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名稱	

緒 論

「圖書館學」은 分明히 圖書館에 가장 밀접하게 關聯된 學問이긴 하나 圖書館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學問은 아니다. 그러므로 「圖書館學」이라고 하는 名稱은 不合理的하다고 하는 것이 斯界의 支配的인 見解이다.¹⁾

이와 같이 不合理的하게 命名된 原因이 무엇인가? 어떠한 名稱을 새로이 賦與하는 것이 가장 妥當할 것인가? 이러한 問題를 究明하는 것도 斯界의 時急하고 중요한 課題라고 생각된다. 本稿는 「圖書館學」名稱의 主要素인 「圖書」의 語源과 그 概念 및 「圖書館」과 「圖書館學」名稱의 形成過程을 究明하고, 「圖書館」과 「圖書館學」에 대한 새로운 命名을 試圖해본 것이다.

Ⅰ. 東洋에 있어서의 記錄類의 通稱

圖書는 現代에 있어서 記錄類의 通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이 그 唯

*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副教授.

1) 김중환, 도서관관계전문지와 관계학문의 재규정. 圖書館學 第1輯, 韓國圖書館學會, 1970. p. 142.

이재철, 문헌과학과 문헌사의 소임.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971. 5 (v.26/no.5) p.3.

이홍구, 도서관학의 문제점. 도협월보. 韓國圖書館協會, 1970. 7. pp.16, 17.

정필모, 한국도서관교육의 좌표.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971. 1 (v.26/no.1) 등 참조.

一한 通稱은 아니다. 歷代의 知的인 記錄資料에 대해서 一般的으로 呼稱되어 온 名稱은 너무나 雜多하고 各各의 名稱이 지니는 概念이 서로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正確히 認識하기가 매우 困難하다.

東洋에 있어서 歷代의 記錄類는 冊·典·典冊·竹帛·志·記·傳·典籍·書·書冊·書策·書籍·圖書·文·文籍·圖籍·文獻·卷·卷物·書物·文物·文書 등으로 通稱되어 왔다.

「冊」은 現在까지도 記錄類의 通稱인 바 이것은 “甲骨文에는 冊으로 되어 있어 마치 竹簡을 엮은 모양”이고, 「典」은 “金文에는 冊으로 나타내어, 마치 책상위에 冊을 올려 놓은 象形”²⁾이다. 그러므로 冊·典 또는 典冊은 記錄類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을 나타내는 通稱인 것이다.

「竹帛」은 竹은 竹簡을 말하고, 帛은 絹織物을 뜻하는데, 竹만을 말할 때는 大(竹)를 말하는 것인지 竹簡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帛은 衣服을 만들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으므로 帛만을 말할 때에는 帛書를 말하는 것인지 帛衣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竹帛 두 字를 합쳐서 圖書를 意味한 것이다.³⁾ 그러므로 「竹帛」도 象形的인 概念을 지닌 記錄類의 通稱이었다고 볼 수 있다.

「志」는 記錄을 意味하며 古人들은 이것을 항상 圖書의 通稱으로 사용했다.⁴⁾ 志는 文字自體도 「士」와 「心」의 結合으로 이루어진 會意字로서 記錄類의 知的인 意味를 表象한 概念이라고 볼 수 있다.

「記」는 뜻을 記錄하고 訓을 달아 놓은 것으로 「志」와 같은 뜻을 가지며 圖書의 通稱이었다.⁵⁾ 「記」는 文字自體도 「言」과 「己」의 結合으로 이루어진 會意字로서 圖書의 知的인 意味를 表象한 概念이었다고 볼 수 있다.

「傳」은 經을 解釋한 것을 意味하거나 行實을 記述한 글을 意味하며, 이것은 秦·漢以來의 圖書의 通稱이었다.⁶⁾ 그러므로 「傳」도 會意字로서 圖書의 知的인 意味를 表象한 概念이라고 볼 수 있다.

2) 屈萬里·昌彼得共著, 沈暘俊譯, 圖書板本學要略, 文成社, 1966. p. 16.

3) *loc. cit.*

4) *ibid.* p. 17.

5) *loc. cit.*

6) *loc. cit.*

「書」字에 대한 解釋은 여러가지 說이 있으나 「書」는 「隸」에서 온 것으로 「隸」字는 바른 손에 붓을 쥐고 글을 쓰는 形象을 나타낸 會意字이며, 「書」는 竹帛에 쓴 것을 意味한다고 하는 것이 正說이다. 屈萬里씨와 呂彼得씨에 의하면 “甲竹文에는 隸을 卍로 썼거나, 卍로 反書하였거나 卍로 썼고, 金文에는 卍 卍 卍 卍 등 各樣各色으로 되어 있는데 卍는 곧 바른 글짜로서 바른 손의 모양이 된다. 卍은 붓을 세워 눌러 갈라 놓은 모양이고, 卍은 墨을 묻혀서 부풀은 모양이므로, 그 形態는 비록 一致하지 않으나 붓(筆)의 形態임이 틀림 없다”고 한다. 또한 “甲竹文에는 아직 「書」字가 보이지 않으나, 金文의 「書」字는 龠나 龠와 같은 여러 가지의 形態로서 모두 붓으로 쓴 것이며, 書는 著字로서 「竹帛에 쓴 것을 書라고」 하고, 「箸는 옛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屈씨와 呂씨는 또한 毛筆이 一般的으로 蒙恬에서부터 비롯했다고 認定되고 있으며 隸字의 始源은 훨씬 前代이므로 隸字에 대한 그들의 解釋이 疑心스러울 것이라는 點을 指摘하고 毛筆은 蒙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實은 商代에 이미 있었거나 늦어도 殷代中葉以後에 있었음을 考證하였다. 또한 “隸字의 卍은 卍字와 같으며, 毛穎의 形象字임에 疑心할 餘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붓을 쥐고 竹帛에 썼다는 事實도 이로 미루어 또한 疑心할 바 없다”⁷⁾고 論證하고 있다. “最初의 書字의 뜻은 書寫한다는데 있었고, 그 후에는 竹帛에 쓴 것을 書라하여, 動詞로부터 名詞로 變換한 것”⁸⁾이다.

“「書」字가 圖書의 汎稱으로 된 것은 늦어도 戰國初葉부터 시작된 것”¹⁰⁾이다. 「書」는 文字의 構成으로보아 會意字이나 이것은 象形的인 概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書冊」은 書와 冊의 複合語로서 書籍 書卷 書策과 같은 意味를 가지는데 「后山談叢」에 의하면 古書는 모두 卷으로 부르다가 唐나라 때에 와서 비로소 葉子로 불렸으며, 오늘 날은 書冊¹¹⁾이라고 한다. 書와 冊은 各各 象形的인

7) *ibid.* p. 13, 14.

8) *ibid.* p. 14.

9) *loc. cit.*

10) *loc. cit.*

11) 諸橋徹次著.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 30~31(1955~56).

文字로서 記錄類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書策」은 書와 策의 複合語로서 書籍 書卷 書冊과 같은 意味를 가지며, 古代에는 대(竹)에 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書策¹²⁾이라고했다. 書와 策도 各各 象形的인 文字로서 記錄類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圖書」: 「書」字에 대해서는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圖」字는 口(計測한다는 뜻)와 罍(吝嗇하다, 바뀌어 困難하다는 뜻)와의 合字로서 本義는 計劃의 困難을 뜻한다. 그러므로 口와 罍를 합하여 그 뜻을 나타낸다. 一說에는 口는 國家를 뜻한다. 國家를 經營하는 것이 가장 困難하기 때문에 口와 罍를 합하여 計劃이 困難하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며, 古字는 囗와 罍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한다.¹³⁾

「圖」字의 뜻은 罍(計測), 재려고 努力한다, 相談한다, 謀(謀)한다, 생각한다, 생각에 미친다(及), 除去한다, 없앤다, 取한다, 헤아린다, 그린다, 複寫한다, 그림, 肖像, 地圖, 印章 등을 意味하며, 河圖의 略稱으로도 통하고 法度로도 통한다.¹⁴⁾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림이나 肖像 地圖 등의 뜻을 가지며, 圖書는 書物 書籍 圖籍과 같은 意味를 가지며, 河圖洛書¹⁵⁾를 略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圖」字는 推想的인 概念을 나타내는 文字이며 「書」字는 象形的인 概念을 나타내는 文字이나 「圖書」는 ‘글씨나 그림이나 書籍’ 그 自體의 概念을 가지는 것이며, ‘글씨나 그림이나 書籍’이 지니는 意味上的 概念은 稀薄하다. 그리고 現在 通用되는 가장 通俗的인 圖書의 概念도 圖書의 形態를 가춘 冊은 「圖書」, 圖書의 形態를 가추지 못한 것은 「非圖書資料」이며, 큰 冊은 大型本圖書, 작은 冊은 小型本圖書 등과 같이 圖書는 冊의 形態나 形式上的 概念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圖書에 대한 定義에서 더욱 明確히 把握할 수 있다. “圖書란 筆寫 또는 印刷된 論著 그리고 續刊되는 것으로서 數枚의 紙

12) *ibid.*

13) *ibid.*

14) *ibid.*

15) *ibid.*

葉 또는 기타의 材料로 엮은 內容의 全體를 合綴한 것이다. 廣意로는 parchment papyrus 종이 綿布 絹布 棕栲葉 樹皮 木板 象牙 石盤 金屬板 陶器 등에 쓰여져서 가지고 다니기에 便利하도록 되어있는 形態, 즉 卷子形 내지는 各葉을 金屬 革皮 등에 留滯하여 展覽할 수 있고, 실로 꿰매거나 아교풀 등으로 붙인 것 등 一切의 書籍을 包含한다.¹⁶⁾

이 圖書에 대한 定義에서 우리는 冊을 構成하고 있는 資料, 冊의 記錄形式, 또는 記錄된 資料의 形態 등의 概念以外에 圖書가 지니는 內容上의 知的인 概念은 意識할 수 없다. 그러므로 圖書는 冊의 象形的인 概念을 나타내는 用語라고 볼 수 있다.

「書籍」: 「書」字에 대해서는 既述한 바와 같다. 「籍」字는 元來는 籍으로 만들어 졌던 글자이다. 籍字의 뜻은 文, 書物, 써붙인 것, 簡書, 帳簿, 簿冊, 이름쓰기, 名札, 人名簿, 사람가려내는 帳簿, 戶籍, 表示, 써 넣는 것, 名簿戶帳에 記錄한다, 빌린다, 強制로 取한다, 밟는다(蹈), 갈다(耕), 許한다 등¹⁷⁾의 여러 가지 意味를 가진다.

「籍」字의 構成은 竹과 藉이 結合한 會意字로서 記錄類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을 가지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書籍의 概念도 역시 象形的인 것이다.

「文」字는 무늬, 色, 빛깔, 型, 模樣, 나무결(木理), 모기 좋은 것, 理致, 條理, 禮樂制度, 現象, 文字, 書籍, 語句, 文章, 美, 善, 德, 德惠, 仁德, 學問, 整頓한다, 裝飾한다 등의 많은 意味를 가진다. 그리고 「文」字의 構成은 象形과 指事に 속하는 것으로서, 筆劃이 서로 交叉하여 類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形態를 象形하는 뜻을 나타낸 文字이다.¹⁸⁾

여하튼 「文」字가 文字나 書籍이나 文章 또는 學問을 意味하는 경우 이것은 記錄類의 象形的인 概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知的인 意味를 表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文籍」: 「文」과 「籍」에 대해서는 各各 위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같다. 文籍은 書物, 文書, 書籍과 같은 意味를 가지는 用語로서 「文」은 知的인 意味

16) 植村長三郎著. 書誌學辭典. 東京, 教育圖書株式會社, 昭和 17(1932).

17) 諸橋 徹次. *op. cit.*

18) *ibid.*

를 表象하며, 「籍」은 記錄類를 象形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文籍은 記錄類에 대한 知的인 表象과 外的인 象形을 同時에 나타내는 概念이라고 볼 수 있다.

「文獻」: 「文」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같다. 「獻」은 獻上한다, 進行시킨다, 바친다(捧), 音樂을 演奏하여 祭祀를 지낸다, 王에게 物件을 奉한다, 上奏한다, 王의 말을 받든다, 술을 손(客)에게 권한다, 나아가다(發), 祭祀를 지내는 物件, 마지한다, 가깝다, 善, 賢人, 儀, 본보기¹⁹⁾ 등의 여러 가지 意味를 가지고 있다.

「獻」字의 構成은 虍 兩 犬 등의 적어도 3字以上이 結合한 會意字로서 以上에 說明한 여러 가지 行動을 나타내는 內容을 表象하는 概念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文獻」이란 用語는 孔子가 最初에 “典籍”과 賢者”(論語, 八佾)²⁰⁾라는 意味로 사용하듯하며, 옛 制度와 文物을 알 수 있는 證據가 되는 것, 文書나 制度 등 記錄類에 대한 汎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文」과 「獻」은 各各 指事 또는 會意字로서 「文獻」은 記錄類에 대한 知的인 意味를 表象하는 概念으로서, 記錄된 資料나 그 形態와는 상관없이 記錄類 一般에 대한 包括的인 概念을 가지는 동시에 文獻은 貴重한 學術的인 價値가 있는 것을 指稱한다.

其他: 記錄類를 指稱하는 用語로서 文物, 典籍, 卷, 卷物, 書卷, 書物, 葉子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記錄類의 知的인 內容을 表象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以上에서 例擧한 바와 같이 東洋에 있어서의 歷代 記錄類의 通稱은 雜多하나, 記錄類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을 가지는 名稱과 記錄類의 知的인 意味를 表象하는 概念을 가지는 名稱, 두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前者에 속하는 것은 冊, 典, 竹帛, 書, 書冊, 書策, 圖書, 書籍, 文籍, 文物, 卷, 卷物, 書卷, 書物, 葉子 등이며, 後者에 속하는 것은 志, 記, 傳, 文, 文獻 등이다.

19) *ibid.*

20) *ibid.*

II. 西洋에 있어서의 記錄類의 通稱

西洋의 記錄類의 通稱은 Papyri, Biblion, Liber, Book, Buch 및 Literature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Papyri는 Papyrus에서 變換한 말이며, Papyrus는 Egypt의 Nile江 流域에 生成했던 東洋의 왕골처럼 생긴 풀(草)의 이름인데, B.C. 3千年頃 Egypt 사람들은 이 풀 줄기의 속대(心)를 얇게 쪼개서 세로 가로로 엇갈리게 퍼서 늘려 말려서 筆寫의 資料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Papyri (Papyrus의 複數)라고 했으며, 이것이 記錄類의 通稱이 되었던 것이다.²¹⁾

Biblion은 Greek 말의 Biblos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말도 또한 Papyrus에서 由來한 말이다. 위에서 말한 Papyri는 Egypt에서 한때 量産되었는데 그 當時 地中海沿岸의 商業國이었던 Phoenicia사람들이 Papyri를 輸入하여 다시 Byblos 港口를 통해서 Greece로 輸出했다. Greece 사람들은 그것이 Byblos 港口에서 온 것이라고 하여 Biblos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Biblos에 글을 쓴 것을 Biblion(複數 Biblio)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冊을 意味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이다.²²⁾

Liber는 Latin語系의 말로서 樹皮를 意味한다. 古代 Roma에서는 傳統的으로 이 Liber를 乾燥해서 筆寫의 資料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冊을 意味하는 말로 通用되었던 것이다.²³⁾

Book, Buch: 現代英語에 있어서 Book과 獨逸語의 Buch는 同一한 語源을 가지는 Teuton系의 日말에서 由來한 것이다. 古代英語에 있어서는 boc로서 單音節의 女性名詞였으며, 複數는 bec로 쓰였다. Old High German에서는 buoh(pl. buch)로서 주로 中性名詞로 쓰였으며, 男性과 女性名詞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Middle High German에서는 buoch로 綴字되었었다.

21)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2vs. and supple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22) 庄司淺水著. 本の文化史. 東京, 雪華社, 1963. pp.13—19.

23) 椎名六郎著. 圖書館學概論. 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1960. p. 1.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p. cit.*

語源學的으로는 古代英語에 있어서 b6c 또는 béce로 일컬어졌던 beech-tree의 이름과 關聯된 것으로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다. 그 緣由는 最初의 刻銘은 「나도발나무板」(beechen tablets)에 이루어졌으며, 혹은 나도발나무(beech trees)의 껍질에 새겨졌기 때문이다.²⁴⁾

그러나 b6k-s라고 하는 筆寫板이 가장 原始的인 것이라고 보는데 있어서 이 두 낱말(b6c, b6k)의 最初의 形態를 融和시키기에는 困難한 점이 있다.²⁵⁾

Book은 古代에는 하나의 著作(a writing) 하나의 記錄文書(a written document), 土地가 讓渡되는 證書(a charter or deed by which land was conveyed) 등의 意味로 사용되었다. 16世紀와 17世紀에는 하나의 (記錄된) 說話나 이야기, 記錄, 리스트, 登錄簿(a (written) narrative or account, record, list, register) 등의 意味로 사용되었다.

現在는 一般的으로 ‘筆寫되었거나 印刷된 하나의 論著나 一連의 論著로서 여러장(枚)으로 된 종이(紙)나 기타의 物體가 하나의 全體의인 資料를 構成하도록 함께 매어진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넓은 意味에 있어서 全年代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 冊(book)은 어떠한 資料(革皮, parchment, papyrus, paper, 綿織物, 網織物, 棕欄葉, 樹皮, 木板, 象牙, 石板, 金屬 등)에 쓰여진 論著로서, 손으로 運搬할 수 있는 어떤 形態로 묶은 것, 즉 예를 들면 긴 두루마리나, 各各의 分離된 낱장(枚)으로 된 것이 들져귀를 달거나, 노끈으로 매거나, 실로 꿰매거나, 풀로 함께 붙인 것을 意味한다.²⁶⁾

Book에 대한 以上の 說明은 그에 대한 定義로서 東洋의 ‘圖書’에 대한 定義와 그 概念이 一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terature는 本來 late-ratour에서 litterature(or lytterature)→litteratur(-uir)→literature로 變化한 말로서 14世紀부터 19世紀까지는 주로 學問이나 冊에 대한 知識(acquaintance with letters or books), 純粹學問 또는 人文的學問(polite or humane learning), 學問培養(literary culture)이라는 意味

24)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p. cit.*

25) *ibid.*

26) *ibid.*

로 사용되었다. 18世紀末葉부터 19世紀末葉까지는 주로 學問的著作(literary work or production), 學者의 活動이나 專門性(the activity or profession of a man of letters), 學問領域(the realm of letters)등의 意味로 사용되었다. 19世紀 以後로는 주로 全體的인 文學的著作(literary production), 特定한 國家나 時期에 있어서의 혹은 一般的으로 世界에서 著述된 記錄類의 總體(the body of writings produced in a particular country or period, or in the world in general) 등의 意味로 사용되었다.

現在는 또한 더 制限된 意味로, 美의 形式이나 靈感的인 意味가 있다고 考慮되는 著作(writings which has claim to consideration on the ground of beauty of form or emotional effect)(註, 文學著作)에 적용되며, 特定한 主題를 다룬 圖書와 著作의 總體(the body of books and writings that treat of a particular subject)를 意味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西洋에 있어서의 歷代記錄類에 대한 通稱은 東洋의 그것과 같이 雜多하지는 않으나 各各의 通稱이 大部分 筆寫資料의 名稱에서 由來했다는 點에서 共通하며, 이와 같이 筆寫資料의 名稱에서 由來한 通稱 즉 Papyri, Biblion, Liber, Book 및 Buch는 記錄類의 知的인 意味를 表象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과 個體性을 나타낸다는 것을 意識할 수 있으며, 특히 Book의 概念이 東洋에 있어서의 圖書의 概念과 一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literature는 本來부터 知的인 意味를 表象한 말로서 '學問이나 冊에 대한 知識'이라든가 '記錄類의 總體' 또는 '特定主題를 다룬 圖書와 著作의 總體'라고 하는 包括的인 概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Ⅲ. 東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名稱

東洋에 있어서 近世以前에는 「圖書館」이 라는 名稱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圖書館」마다 각기 다른 特異한 名稱이 주어졌다. 中國 古代의 宮中에 있었던 藏書處는 冊府 또는 策府, 秘閣 또는 秘府, 藏書閣 또는 藏書樓 등으로 指稱되었다. 歷代의 藏書處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그 主要한 것만을 열거하여도 各各 다른 여러 가지의 名稱을 볼 수 있다.

漢代에는 蘭臺·麒麟·石渠·天祿·石室·延閣 등이 있었으며, 東晉에는

東觀·仁壽閣이 있었다. 西晉에는 秘書閣·中閣·外閣이 있었으며, 宋나라에는 總明殿, 齊나라에는 學士館이 있었다. 梁나라에는 文德殿·華林園·秘書省이 있었으며, 北齊에는 仁壽閣·文林閣이 있었다. 後周에는 虎門麟跡이 있었으며, 隋나라에는 東都修文殿·東都觀文殿이 있었다. 唐나라에는 官書庫로서 弘文閣·文德殿·四庫·十二庫가 있었으며, 民間에는 李書樓·鄴架가 있었다. 宋나라에는 官文庫로서 尊經閣·秘閣·龍園閣·天章閣·太清樓·王辰殿·四門殿이 있었으며, 民間에는 讀書堂(司馬光)·白石菴(李公擇)·遂書堂(尤表)이 있었다. 明나라에는 官文庫로서 秘閣文淵, 民間에는 汲古閣(毛晉)·蓁竹堂(葉盛)·天一閣(莊欽)·萬卷堂(陸燦)·萬卷樓(湯鈺)千頃堂(黃居中)·靜楊堂(曹溶)·澹生堂(祁承樸)·清森閣(何良俊) 등이 있었다. 淸나라에는 官文庫로서 文淵·文源·文津·文溯·文崇·文滙·文瀾의 七閣과 昭仁殿이 있었으며, 民間에는 鐵琴銅劍樓(瞿啓甲)·玉玲瓏閣(龔翹麟)·絳雲樓(錢謙益)·述古堂(錢曾)·傳是樓(徐乾學)·培林堂(徐秉義)·含經堂(元文)·芳椒堂(嚴元照)·文選樓(阮元)·學海堂(阮元)·愛日精廬(張金吾)·百宋一廬樓(黃丕烈)·士禮居(黃丕烈)·文瑞樓(金壇)·藝藝書舍(汪士鍾)·知不足齋(鮑廷博)·守山閣(錢照祚)·平津館(孫星衍)·孫氏祠堂(孫星衍)·小方壺齋(王錫祺)·靈芬館(郭麐)·通志堂(納蘭成德)·藝海樓·詒經堂(張金吾)·曝書亭(朱彝尊)·也是園(錢曾)·校禮堂(凌廷堪)·寶硯齋(何焯)·樊榭山房(厲鶚)·涵芬樓(商務印書館)·樂善堂(怡親王弘曉)·韶宋樓(陸心源)·春在堂(俞樾)·閱微草堂(紀昀)·結一廬(朱學勤)·善本書室(一名 八千萬卷樓, 丁丙)·雅雨堂(盧見會)·潛研堂(錢大昕)·湖海樓(張壽榮)·借月山房(張海鵬)·滂喜齋(潘祖蔭)·玉函山房(馬國翰)·惜陰軒(李錫齡)·八千卷樓(丁仁) 등이 있었다.²⁷⁾

우리 나라에는 李朝時代에 「史庫」·「奎章閣」·閱古觀·宙合樓·集玉齋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東洋에 있어서는 藏書處나 圖書館을 指稱하는 一般的인 通稱이 없었으며, 固有名詞나 어떠한 藏書를 象徵하는 推想的인 文字 다음에 府·閣·樓·室·觀·殿·館·跡·架·堂·齋·亭·房·軒·庫 등의 文字를 붙

27) ibid.

여서 個個의 圖書館을 指稱한 바 있다.

Ⅳ. 西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名稱

西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通稱은 英語로는 Library, 獨逸語로는 Bibliothek, 佛語로는 Bibliothek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用語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4世紀末期 以後부터라고 생각된다. 그 理由는 1374년에 Chaucer가 翻譯한 Boethius에 비로소 lybrarye라는 말이 나오고 1430~40년에 著述된 Lydgate의 Boches라는 作品에 library 라는 말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古代의 Egypt나 Greece나 Rome에 있었던 數 많은 圖書館들의 名稱은 일일이 그 原名을 밝힐만한 記錄을 아직 發見하지 못했으나, B.C 1250年頃 Egypt의 Thebes에 設立되었던 圖書館의 名稱은 “靈魂을 療養하는 곳”(A Place of Healing for the Soul)²⁸⁾이었으며, Greek의 Alexandria에 Ptolemy 1세가 세웠던 Museum 學園內에 있었던 圖書館의 原名은 Museion 혹은 Brucheion²⁹⁾이었다. 또한 Alexandria 地域의 Serapis寺院에 設立되었던 圖書館의 原名은 Serapeum³⁰⁾이었으며, Rome의 Apollo寺院에 設立되었던 圖書館의 名稱은 Palatine과 Octavian³¹⁾이었다. Rome 地域內의 圖書館은 Ulpian³²⁾이었으며, 830년에 Bagdad에 設立되었던 圖書館의 名稱은 “知慧의 집”(A house of wisdom)³³⁾이었다.

이와 같이 西洋古代의 圖書館의 名稱은 學問이나 知識에 聯關된 象徴的인 名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世紀以後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Library라는 말은 本來 Latin系의 Liber(樹皮)에서 온 말이다. 위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古代 Roma에서는 傳統的으로 이 Liber를 乾燥해서 글을 쓰는데 使用했기 때문에 冊을 意味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 變해서 冊에 關係있는 사람이

28) Nichols, C.L. *The Library of Romeses the Great*. Cambridge, Cambridge Univ.Press, 1909. p. 10.

29) Gates, Tean Key.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 New York, McGraw-Hill, 1963. p.14.

30) *loc. cit.*

31) *ibid.* p. 18.

32) *loc. cit.*

33) *ibid.* p. 25.

나 書籍商을 Librarie라고 했으며, 書庫를 Librarium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다시 變해서 Library가 된 것이다.³⁴⁾

Bibliothek는 역시 Papyrus에서 由來한 말로서 위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Papyrus→Biblos→Biblion으로 變하여 Biblio는 冊을 意味하며 thék는 두는 곳(置場)을 意味하는 말로서 이들을 結合하여 Bibliothek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Bibliothek와 Library의 用語는 宗教改革時代까지는 併用되었으나 그後부터 이것이 獨逸과 佛蘭西國系에서는 Bibliothek (que)로 사용되고, 英美國系에서는 Library로 사용되게 되었다.³⁵⁾

여기에서 留意할 點은 Library 라는 用語의 概念은 Book+storage (stack-warehouse)와는 다르며, Bibliothek는 Buch+thék와는 概念이 다르다는 點이다.

V. 19世紀末期 東洋에 있어서의 圖書館名稱의 變遷

近世以前の 圖書館의 名稱에 대해서는 이미 說明하였거니와 19世紀末期와 20世紀 初期부터는 이러한 名稱들이 점점 사라지고 몇가지 共通된 名稱이 나타나기 시작한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그 共通된 名稱은 주로 文庫·書籍縱覽所·書籍館·圖書館 등이다.

文庫의 例로는 1870년에 設立된 日本의 海軍兵學寮文庫, 1884년에 設立된 太政官文庫, 千代田文庫, 宮崎文庫, 1907年 우리나라의 江景에 設立된 江景文庫, 1909년에 設立된 京城文庫 등이다. 書籍縱覽所의 例로는 1874년에 日本의 八戶町에 設立된 私立八戶書籍縱覽所, 1879년에 設立된 滋賀縣立師範學校書籍縱覽所, 1880년에 設立된 栃木縣書籍縱覽所 등이다. 書籍館의 例로는 1872년에 設立된 東京書籍館, 1877년에 設立된 埼玉縣立浦和書籍館, 1879년에 設立된 縣立新潟學校附屬書籍館과 高知書籍館, 縣立秋田書籍館, 1880년에 設立된 私立信成書籍館과 五戶村立書籍館, 1883년에 設立된 橫山書籍館, 1885년에 設立된 福山書籍館 등이다.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하기 시작한 例로는 1877年 設立된 東京大學法理

34)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p. cit.* 椎名六郎 *op. cit.* p. 1.

35) *loc. cit.*

文三學部附屬圖書館, 1878년에 設立된 東京高等師範學校圖書館, 1880년에 東京書籍館을 改稱한 東京圖書館, 1881년에 設立된 東京帝國大學附屬圖書館, 1882년에 設立된 私立東京專門學校(早大)圖書館, 1885년에 設立된 日本의 中央大學圖書館 등이다. 그리고 1893年以後부터 設立된 것은 文庫, 書籍縱覽所, 書籍館의 名稱은 거의 사라지고 圖書館이라는 名稱으로 統一되었다.

中國에 있어서는 1898年(光緒 24) 湖南地方에 公共圖書館을 設置하므로써 現代圖書館의 시초가 된 것이며, 이때에 비로소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한 것이다.³⁶⁾

우리나라에서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06年 大韓圖書館設立으로 부터 비롯하며, 1907년에는 奎章閣이 帝室圖書館으로 改稱되었고, 1936년에는 釜山圖書館이 發足되었으며, 그후에 設立된 것은 거의 統一的으로 圖書室이나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했다.

그러면 19世紀末期와 20世紀에 東洋에 있어서 이와같이 圖書館의 名稱이 統一的으로 變遷된 理由는 무엇일까? 그것은 西洋文化의 影響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9世紀末期부터 西洋의 모든 文物制度가 東洋에 導入되어 文化全般에 걸쳐서 많은 影響을 끼친 것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그 最初의 事業은 東西相互間의 意思相通을 위한 言語의 翻譯事業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19世紀末期에 특히 日本을 비롯해서 韓國과 中國에서 西洋의 言語를 東洋語로 解說한 外國語辭典類가 상당히 많이 出版되었다. 그러나 東洋諸國과 西洋諸國間의 文物制度가 서로 다른 點이 많기 때문에 낯말의 翻譯에 있어서 無理가 많았었다고 생각된다. 그 예는 우선 本項에서 論及하고자 하는 Library와 Bibliothek를 翻譯한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871년에 出版된 日本의 「和譯英辭林」³⁷⁾에는 Library가 “圖書를 모아 두는 곳”(書物ヲ集メ置ク所)이라고 翻譯되었으며, 역시 1871년에 出版된 「佛和辭典」³⁸⁾에는 Bibliothéque가 “書庫”라고 번역되었다. 한편 1873년에 發行된 「獨和字典」³⁹⁾에는 Bibliothek가 “書籍 文庫”로 번역되었고, 1887년에 出版

36) 大佐三四五著. 圖書館學の展開. 東京, 丸善株式會社, 昭和29(1954) p. 4.

37) 「譯英辭林」(大正增補). *An English-Japanese, Pronouncing Dictionary*, 4th ed. revised.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1.

38) 佛和辭典. 寄陽女子樹堂譯. 明治 4(1871) *Nouveau Dictionair. Francais-Japanais*. Shang-

된 「英和字彙」⁴⁰⁾에는 Library가 “書房 書庫 書籍館”이라고 번역되었고, 1893년에 發行된 「佛和字彙」⁴¹⁾에는 Bibliothèque가 “典籍類聚 書架 文庫”라고 번역되었으며, 1904년에 出版된 「和佛大辭典」⁴²⁾에는 Bibliothèque가 “圖書館”이라고 번역되었다. 그리고 그 以後에 出版된 모든 外國語辭典類에는 “圖書館”이라고 統一되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와 같이 Library와 Bibliothèque의 번역이 最初에는 “圖書를 모아 두는 곳”에서 “文庫→書籍館→圖書館”으로의 變遷은 이미 위에서 말한 實際의 圖書館의 名稱의 變遷과 一致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最初에 Library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名詞가 아닌 “圖書를 모아 두는 곳”이라고 하게된 原因은 무엇일까? 그 것은 이미 前項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19世紀以前에는 東洋에서는 圖書館을 指稱하는 通稱이 없었으며, 閣·觀·庫·府·樓·殿·館·堂·室·齋·跡·架·亭·房·軒 등의 여러 가지 文字 앞에 固有名詞나 어떠한 記錄類를 象徵하는 듯한 推想的인 文字를 붙여서 個個의 圖書館이 각기 다른 名稱으로 指稱되어 왔기 때문에 Library라는 낱말을 東洋語로 翻譯할 用語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判斷할 수 밖에는 없다. 그리하여 Library와 對等한 用語를 찾아낸 것이 ‘文庫’였으며 다음으로 ‘書籍館’→‘圖書館’이었다.

結 論

以上에서 歷代의 記錄類의 通稱과 歷代의 圖書館의 名稱과, 19世紀末期와 20世紀初期에 東洋에 있어서의 圖書館名稱의 變遷을 살펴 보았다. 우선 東洋에 있어서 歷代 記錄類의 通稱은 複雜하고 그 種類가 많으나, 記錄類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을 가지는 通稱과, 記錄類의 知的인 意味를 表象하는 概

hai, Imprimerie de La Mission Presbytérienne Americaine, 1871.

39) 獨和字典. *Deutsch-Japanisches Wörterbuch, mit Einem Verzeichniss der Unregelmässigen, Zeit Wörter* Erste Auflage. Shanghai, Amerikanische Missions Buchdruckerei, 1873.

40) 柴田昌吉, 子安峻同著. 英和字彙 增補訂正版. 東京, 日就社, 明治 20 (1887).

41) 佛和字彙. 中江篤介, 野村泰亨共譯. 佛學研究會藏版, 明治26(1893)(*Dictionaire Universel du Francais Japonais*).

42) ルマレシヤル 和佛大辭典. 東京, 三才社, 明治37(1964).

念을 가지는 通稱, 두 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前者에 속하는 것은 冊·典·竹帛·書·書冊·書策·圖書·書籍·文籍·文物·卷·卷物·書卷·書物·葉子 등이며, 後者에 속하는 것은 志·記·傳·文·文獻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文獻은 記錄類의 知的인 意味를 表象하는 동시에 記錄類 一般에 대한 包括的인 概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것이 記錄類의 汎稱으로서 가장 妥當한 用語라고 볼 수 있다.

한편 西洋의 歷代의 記錄類의 通稱은 Papyri, Biblion, Liber, Book, Buch 및 Literature 등이 있다. 이 가운데 Papyri, Biblion, Liber, Book 및 Buch는 各各 筆寫資料의 名稱에서 由來한 것으로 이 用語들은 各各 概念上의 差異는 있으나 記錄類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을 가진다는 點에서는 共通하며, 특히 'Book'는 東洋의 '圖書'의 概念과 一致한다. 그리고 literature는 本來부터 記錄類의 知的인 意味를 表象한 用語로서 '學問이나 冊에 대한 知識', '記錄類의 總體' 또는 '特定主題를 다룬 圖書와 著作의 總體' 등 記錄類에 대한 包括的인 概念을 가지며, 이것은 東洋의 '文獻'의 概念과 一致한다.

東洋에 있어서 近世以前에는 '圖書館'이라는 通稱이 없었으며, 이를 指稱하는 名稱은 閣·觀·庫·樓·堂·室·齋·府·殿·館·跡·架·亭·房·軒 등의 文字 앞에 固有名詞나 어떤 象徴的이거나 推想的인 文字를 붙여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個個의 圖書館마다 各各 다른 名稱이 주어졌으므로 '文獻을 蒐集하여 그것을 活用하는 곳'을 指稱하는 傳統的인 名稱이 없었다.

西洋에 있어서도 古代에는 Library나 Bibliothek라는 名稱이 없었다. 古代에는 '靈魂을 療養하는 곳'(A place of Healing for the Soul), Museion, Brucheion, Serapeum, Palatine, Octavian, Ulpian 또는 '知慧의 집'(A house of wisdom) 등 圖書館마다 各各 다른 名稱이 주어졌다. Library나 Bibliothek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4世紀後半期부터라고 생각된다. Library는 Latin語系의 Liber(樹皮)에서 變遷된 낱말이며, Liber는 元來 글을 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冊을 意味하였으나 이것은 이미 死語로서 Book의 概念과 一致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Library는 Book+Storage (Stack or warehouse)의 概念과는 다르다.

Bibliothek는 Papyrus에서→Biblos→Biblion으로 變遷한 낱말로서 Biblion은 冊을 意味하나 Bibliothek는 Buch+thék의 概念과는 다르다.

19世紀末期에 東洋에서 Library와 Bibliothek의 譯語로서 造成된 ‘圖書館’은 ‘圖書+館’이라고 하는 概念에서 이루어진 造語라고 생각되나 Library가 Book+Storage의 概念과 다르고 Bibliothek가 Buch+thék의 概念과는 다르므로 ‘圖書館’은 格에 맞는 成語라고 볼 수 없다. 또한 Library나 Bibliothek의 譯語로서가 아니라 ‘記錄類의 殿堂’이라는 意味으로서는 記錄類에 대한 象形的인 概念을 가지는 書籍이나 圖書보다도, 記錄類의 知的인 意味를 表象하는 동시에 더욱 包括的인 概念을 나타내는 ‘文獻’을 앞에 붙여서 ‘文獻館’이라고 하는 것이 格에 맞는 名稱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現在의 「圖書館」은 ‘文獻館’으로 「司書」는 ‘文獻士’로 「圖書館學」은 ‘文獻科學’으로 改稱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더욱이 近年에 이르러 Library라는 用語代身에 Information Service Center, Communication Service Center, Educational Material Center, Information Material Center 또는 科學技術情報센터 등의 名稱이 주어지는 趨勢로 보아 西洋의 Library 라는 通稱도 그 機能에 따라서 새로운 名稱으로 變遷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現在의 不合理한 名稱을 固守할 것이 아니라 이를 合理的이고 現代의인 感覺에 맞는 名稱으로 果敢하게 改稱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약 社會의 通念上 이른 바 「圖書館」을 「文獻館」으로 改稱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이른 바 「圖書館學」이라고 하는 學問의 名稱만이라도 改稱되어야 한다. 그것이 「圖書館」과 가장 밀접하게 關聯된 問題를 다루는 學問이라고 해서 반드시 「圖書館學」이라고 命名해야만 한다고 하는 論理는 成立할 수 없다. 예를 들면 ‘兒童들을 모아 가르치는 곳은 學校이며, 가르치는 自體는 教育이며, 教育의 問題를 다루는 學問은 教育學이다. 이러한 例에 따른다면 「圖書館」은 文獻을 蒐集하고 이를 組織하여 效果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奉仕하는 機關이며, 圖書館에서의 奉仕活動은 文獻情報活動이며, 文獻의 蒐集組織 및 그 效用을 위한 方法을 體系으로 研究하는 學問은 「文獻科學」이라고 하는 것이 當然한 論理라고 생각된다.

An Etymological Study on Libraries

Pil-mo Zung*

〈ABSTRACT〉

Libraries both in the East and the West in terms of its usage went through various changes in meaning. The writer attempted an etymological study on the terms of libraries from the earliest time to the present time. Finding various ways and means of usage in the literature of past and present, the writer tries to suggest the best fitted term for libraries to the Korean usage. The suggestion which the writer intended to introduce is Munhun-gwan(文獻館) in the place of Dosu-gwan(圖書館).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Chung-ang University.